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'11년 7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자동차조선과장 주영준(2110-5631), 신정환 주무관 (2110-4825)

※ 본 조사는 자동차공업협회와 수입자동차협회의 회원사(국내 완성차社 및 수입차판매업체) 국내시장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잠정치임

자동차산업은 고속질주 中

- 상반기 수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-

- 하반기 수출도 꾸준한 호조세로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-

1. 자동차산업 상반기 실적

□ 지식경제부는 금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은 세계적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, 수출은 **1,540,772대**, 생산은 **2,302,601대**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, 내수는 **739,197대**로 잠정 집계 되었다고 밝힘

< '1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 (단위 : 대, %) **>**

구분	'10년 상반기	'11년 상반기	전년대비 증가율
생 산	2,099,557	2,302,601	9.7
내 수	752,623	790,861	5.1
국산차	710,676	739,197	4.0
수입차	41,947	51,664	23.2
수 출	1,338,772	1,540,772	15.1

□ **(내수) 상반기 내수시장은 지속적인 경기회복 속에서 전년동기비 5.1%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**

① **반기기준 사상 최다 차종으로 출시된 신차들의 판매 호조**

< 전년동기비 상반기 출시 신차 판매 점유율(단위 : 대,%)>

구분	국산차(승용) 판매	신차 판매	비중	차종
'10년 상반기	589,626	62,081	10.5	3종
'11년 상반기	607,794	133,679	22.0	7종

* '11.上 출시신차 : 그랜저HG, 벨로스터, 모닝TA, 올란도, 아베오, 캡티바, 코란도C

⇒ **업체별 시장점유율 비교** 시 **르노삼성**이 완성차업체 중 유일하게 상반기 신차를 출시하지 못하고, 주력모델의 경쟁심화로 **4.9%p 감소**

*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국산차 업체별 시장점유율 변화(%) : 현대(45.2→46.6), 기아(32.1→33.6), 한국GM(8.1→9.3), **르노삼성(12.0→7.1)**, 쌍용(2.1→2.7)

② **10년 이상 노후차량이 늘어나면서 잠재대체수요가 12.2% 증가**

* 10년이상 노후차량 확대 : 477만대('09.12월)→535만대('10.12월)

③ **중형차는 감소세, 경·대형차는 증가세**

구분(점유율%)	경형	소형	중형	대형	SUV	CDV
'10년 상반기	13.3	24.2	25.6	14.1	20.3	2.5
'11년 상반기	**15.2**	23.4	19.4	**18.7**	19.5	3.8

* 지난해 국산 승용차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던 **중형차**는 경·대형의 강세속에서 지난 해 치열했던 신차경쟁이 진정되면서 **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**

④ **수입차도 상반기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, 강세 지속**

* 전년동기비 수입차 판매 및 점유율(대,%) : '10년 상반기 41,947대(5.6%)→'11년 상반기 51,554대(6.5%)

⑤ **한국GM의 쉐보레 브랜드 도입효과로 상승세**

* '11년 시장 점유율 변화(%) : 8.6('10년)→9.1(3월)→10.2(4월)→10.3(5월)→10.7(6월)

□ **(수출)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5.1%가 증가한 1,540,772대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**

① **미국, 신흥국 등의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세**

* **세계 자동차 수요전망(J.D.파워)** : **80,167천대**(전년대비 5.9% 증가)로 미국 13.0%, 동유럽 9.9%, 중남미 7.9%, 중국 8.2%, 인도 14.0% 증가

② 평균 수출단가 상승에도 불구, **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**

* **(미국 컨슈머리포트)** 현대·기아차 12개 차종이 차급별 추천차량 선정 **(미국 J.D.파워)** 현대차 내구품질조사에서 역대최고인 일반브랜드 3위 기록

** 평균 수출단가(달러) : 11,849/대('10.1-5월) → 13,331/대('11.1-5월)

③ **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**

구분(대,%)	승용차 수출	전략차종 수출(신·구형)	비중
'10 상반기	1,264,557	195,139	15.4
'11 상반기	1,452,281	441,309	30.4

* **전략차종** : **('10.上)** 아반떼, 쏘나타, K5, SM5, 모닝, **('11.上)** 아반떼, 쏘나타, K5, SM5, 모닝, 엑센트, 아베오, 올란도, 캡티바, 코란도C

④ **지진으로 인한 일본차의 공급차질**

<한국과 일본의 전년동월비 수출증가율 비교(%)>

구분	3월	4월	5월	6월
한국	9.4	7.3	10.9	14.2
일본	△26.1	△67.8%	△40.5	7월말산출

2. 자동차산업 하반기 전망

□ **(내수) 6월 SAAR에 의하면 '11년도 내수판매는 지난 해 보다 1.3% 증가한 1,576,300대로 전망**

* **계절조정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**(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)는 **월 국내 판매량(국산차+수입차)을 1년으로 추산한 수치**로 경기예측을 위한 선행지표

○ **(국산차)**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 가중과, 고유가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**경기회복세의 지속과 신차출시, 고연비의 경차 호조세** 지속, 쏘나타 및 K5 **하이브리드차의 본격 시판** 등으로 **하반기는 약 73.2만대, 연간 147만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**

* 하반기 출시예정 신차 : i30 후속, 쏘나타 해치백, 경CUV, 프라이드 후속, 토스카 후속, SM7 후속, 액티언 스포츠 후속

○ **(수입차)** 하반기 출시예정 신차들을 중심으로 **독일차의 꾸준한 강세**가 유지될 것이며, 상반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**일본차들도 신차를 앞세워 반전**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어 **하반기는 약 5.0만대, 연간 10.1만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**

* 하반기 출시예정 신차 : 아우디 New A6, 크라이슬러 200, 토요타 시에나, 닛산 큐브, 볼보 V60, 푸조 New 308,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

□ **(수출)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.8%가 증가한 약 145.9만대가 예상되어, 연간 300만대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**

○ **(부정적 요인)** ①원화강세로 인한 **가격경쟁력 약화**와 ②그리스 재정위기악화 등 **남유럽 재정문제,** ③**선진국 경기 회복세 둔화로 수요감소** 등의 불안요인이 다소 존재하지만,

○ **(긍정적 요인)** 원자재가 상승으로 ①**신흥시장 수요의 증가, 한-EU FTA**로 인한 ②**가격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**, 세계적 고유가로 인한 ③**고연비 소형차의 선호도 증가**, ④**쌍용차 중국수출** 재개 예정 등으로 최대 실적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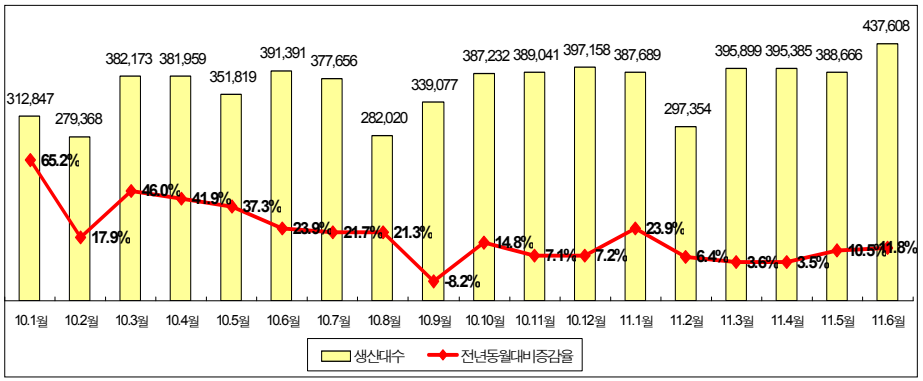
* 한-EU FTA 발효(7.1일) : 1,500cc 초과 3년, 1,500cc 이하 5년에 걸쳐 EU 관세율 10% 인하

** 현대차 미국시장 주요 브랜드 중 평균연비 1위 기록(미국 트루카닷컴)

참고 1 6월 자동차 생산 동향

□ **6월 생산**은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**전년동월비 11.8% 증가한 437,608대**로 **월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**

< '10.1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추이>



○ **현대**(172,352대)는 내수 및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**전년동월비 6.3%, 기아**(144,113대)는 모닝, 포르테, K5, 스포티지R 등 주력차종들의 해외수요가 확대되면서 **12.6% 증가**

○ **한국GM**(83,839대)은 쉐보레 브랜드 도입과 다양한 신차로 수출 및 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**20.6%, 르노삼성**(25,146대)은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**5.6%, 쌍용**(10,795대)은 코란도C의 해외호평을 바탕으로 4개월 연속 1만대를 돌파하면서 **55.0% 증가**

< '11. 6월 업체별 생산 현황 (단위 : 대, %) **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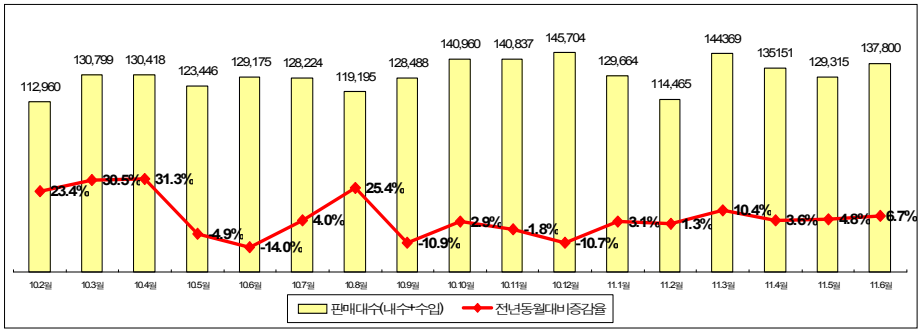
구 분	'11. 6월	'11.1 – 6월	점유율	증감률		
				전월비	전년동월비	전년동기비
합 계	437,608	2,302,601	100.0	12.6	11.8	9.7
현 대	172,352	907,941	39.4	7.2	6.3	3.2
기 아	144,113	785,623	34.1	18.0	12.6	18.2
한국지엠	83,839	415,110	18.0	14.2	20.6	10.5
르노삼성	25,146	130,792	5.7	21.1	5.6	-4.8
쌍 용	10,795	56,913	2.5	4.6	55.0	59.9

* 자료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

참고 2 6월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

□ **6월 내수판매**는 신차효과와 수입차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**전년동월대비 6.7% 증가한 137,800대 기록**

< '10.1월 이후 월별 자동차 내수판매(국산+수입) 추이 >



□ **(국산차 판매)** 6월 국산차 판매는 신차효과와 한국지엠의 쉐보레 브랜드 효과 등으로 **전년동월비 6.0%가 증가한 128,836대 기록**

○ **현대**(59,761대)는 그랜저HG, 아반떼MD, 엑센트, 벨로스터 등 신차효과로 22.9%의 증가를 기록했으나, **기아**(42,200대)는 모닝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물량 공급확대와 기저효과로 5.0% 감소

○ **한국GM**(13,761대)은 쉐보레 브랜도 도입효과와 스파크, 올란도의 꾸준한 수요로 **37.2% 증가**한 반면, **르노삼성**(9,434대)은 주력 모델의 경쟁심화 등으로 **35.6%, 쌍용**(2,777대)은 코란도C 수출물량 선대응으로 **7.6% 각각 감소**

□ **(수입차 판매) 6월** 수입차 판매는 **전년동월대비 2.1% 증가**한 **8,964대로 역대 2번째 월간 판매를 기록**

○ **푸조(8위)는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브랜드 베스트10**에 **진입**하였으며 **MINI(10위)**는 전월대비 -68.3%로 **가장 큰 감소세 기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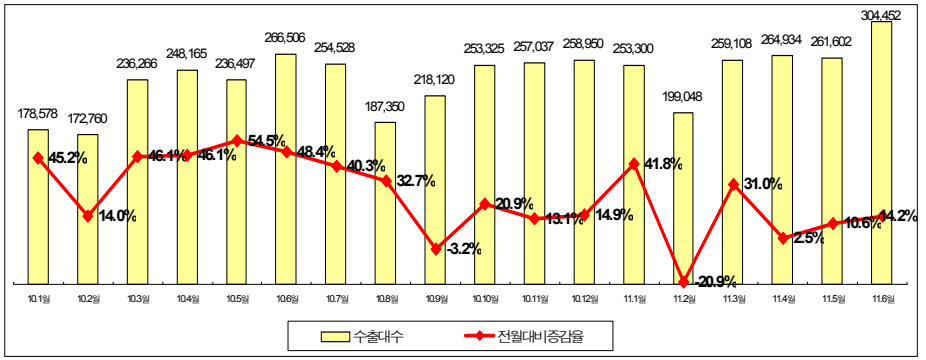
○ 수입차 판매 사상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국산차 판매 증가로 인해 **국내 시장점유율은 전월대비 0.3%p 감소한 6.5%를 기록**

* 수입차점유율(%) : 5.9('11.2월) →7.1('11.3월)→6.1('11.4월)→6.8('11.5월)→**6.5('11.6월)**

참고 3 6월 자동차 수출 동향

□ **6월 수출은** 고연비 소형차의 선호도 증가, 신차종 투입확대 등으로 **전년동월비 14.2%가 증가한 304,452대로 월별 사상 최대치 기록**

< '10.1월 이후 월별 자동차 수출추이 >



○ **현대**(113,559대)와 **기아**(101,055대)는 높은 품질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아반떼, 엑센트, 포르테, 프라이드 등의 고연비 소형차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**전년동월비 각각 6.0%, 21.9% 증가**

○ **한국지엠**(67,116대)는 수출전략차종인 아베오, 캡티바 등의 수출확대로 **9.0%, 르노삼성**(14,778대)은 본격적인 유럽판매에 들어간 뉴SM5 물량증가 등으로 **43.6%, 쌍용**(7,527대)은 러시아, 중남미로의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81.5% **증가**

< '11.6월 업체별 수출 현황 (단위 : 대, %) >

구 분	'11. 6월	'11.1 – 6월	점유율	증감률		
				전월비	전년동월비	전년동기비
합 계	304,452	1,540,772	100.0	16.1	14.2	15.1
현 대	113,559	562,736	36.5	11.7	6.0	5.3
기 아	101,055	534,392	34.7	23.7	21.9	25.9
한국지엠	67,116	335,959	21.8	11.3	9.0	10.0
르노삼성	14,778	70,914	4.6	27.3	43.6	41.4
쌍 용	7,527	34,967	2.3	13.4	81.5	68.8

* 자료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

참고 4 6월 업체별 자동차 판매 현황

< '11.6월 업체별 자동차 판매현황 (단위 :대, %, 소수 두자리 반올림) >

구 분	'11.6월	전월비	전년동월비	비중	'11.1-6월	전년동기비
합 계	137,800	6.6	6.7	100.0	790,861	5.1
국 산 차	128,836	6.9	6.0	93.5	739,197	4.0
현 대	59,761	3.5	22.9	43.4	344,442	7.2
기 아	42,200	11.0	-5.0	30.6	248,345	8.8
한국GM	13,761	10.9	37.2	10.0	69,072	19.5
르노삼성	9,434	17.7	-35.6	6.8	52,602	-38.2
쌍 용	2,777	-21.0	-7.6	2.0	20,246	35.4
수 입 차	8,964	2.1	17.5	6.5	51,664	23.2
B M W	2,083	3.4	36.8	1.5	12,136	75.9
벤 츠	1,743	20.3	3.4	1.3	9,222	21.5
폭스바겐	1,244	-6.5	90.5	0.9	6,592	38.5
아 우 디	864	2.1	28.4	0.6	4,858	22.7
토 요 타	369	8.2	27.7	0.3	2,478	-21.4
렉 서 스	357	62.3	16.3	0.3	1,985	15.7
포 드	321	35.4	-25.9	0.2	1,924	-10.2
푸 조	317	72.3	79.1	0.2	1,370	68.3
크라이슬러	302	19.4	41.8	0.2	1,577	27.1
MINI	266	-68.3	43.8	0.2	2,307	143.9

* 출처 : 한국자동차공업협회, 한국수입자동차협회